

## 가쓰야마-역사적인 거리와 현대 예술의 융합

옛날에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로 번성한 가쓰야마는 오카야마현 북부의 아사히카와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해 에도시대(1603-1867년), 가쓰야마는 상업 도시로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아사히카와 덕분에 이 지역의 목재 산업 지대에서 하류에 있는 항구까지 목재를 쉽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목재 이외의 물건을 수송할 때는 서일본의 동해 연안 도시와 효고현 남부 히메지의 거리를 잇는 이즈모 가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쓰야마의 상인들은 현재 거리 보존 지구로 지정된 중심가를 따라 아름다운 가옥과 점포, 창고를 세웠습니다. 가지런히 늘어선 도자기 기와, 가늘고 긴 목재로 만든 판자벽, 흰 회반죽을 사용한 정면 구조가 특징인 2층 건물이 좁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있고, 각 가게의 정면은 포장된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안목이 높은 분이라면 ‘고테에’라고 불리는 벽에 장식된 회반죽 릴리프나 ‘치미’라는 맛배지붕의 장식품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치미는 용과 같은 영묘한 동물을 묘사한 조각으로, 화재를 막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차가 지나가는 것 외에는 과거 1세기에 걸쳐 마을의 경관 대부분이 바뀌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가쓰야마에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있는 ‘포럼’이라고 불리는 가게 앞에 걸린 다채로운 색채의 커튼입니다. 전통적으로 포럼은 상반신을 가리는 길이의 일반적인 커튼으로, 가게 입구의 바깥쪽에 걸어서 가게가 영업 중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쓰야마의 포럼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 현지의 염색가 가노 요코 씨가 직접 만든 하나뿐인 초목염 공예품입니다. 가노 요코 씨는 각 가게의 주인과 함께 각각의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카페를 위해 디자인된 김이 나는 커피 한 잔 주위에 커피콩이 춤추고 있는 것 등 구체적으로 묘사한 포럼도 있고, 주인의 정신을 표현하는 듯한, 또한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 가게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면서도 표현을 통해 업종을 상상할 수 있도록 추상성 있는 이미지를 도입한 디자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를 채운 초록색 속에서 거나하게 취한 작은 도깨비가 쭈그리고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술집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건축을 배경으로 활기 넘치는 포럼을 보면서 중심가를 따라 산책하기만 해도 가쓰야마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만, 가게 안에도 재미있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년의 역사를 지닌 양조장에는 술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갤러리에는 현지의 예술 작품과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 등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숍에는 갓 썬 사카만주(술과 팔소가 들어간 전통적인 둥근 빵과 같은 것)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리에 ‘히노키 초목 염직 공방’에서는 가노 요코 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체험형 염색 레슨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독창적인 포럼을 디자인하여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독특한 기념품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